

청년층 구직단념자 현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20년 5월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9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감소하였음.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2019년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 4월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부터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구직단념자가 감소하였음.
 - 구직포기 사유별로 보면,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전공·경력에 맞거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증가함.
 - 청년층 구직단념자 중 활동상태별로 ‘육아 및 가사’, ‘쉬었음’보다 취업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멈추었을 뿐이고,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구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표 1〉 구직포기 사유별 청년층 구직단념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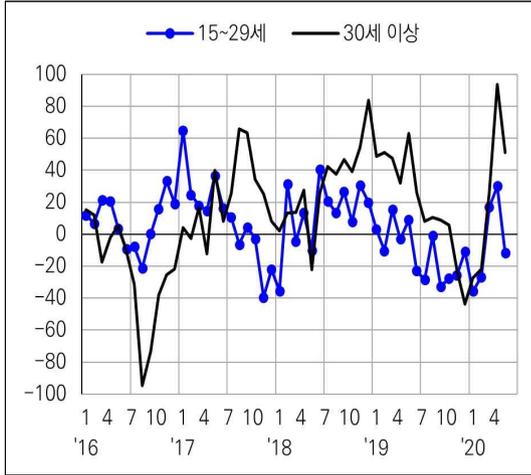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 | 청년층(15~29세) | | | | 구직 단념자 | 전체(15세 이상) | |
|-------------------------|-------------|----------|----------|----------|--------|------------|--------|
|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4월 | 2020년 5월 | | 2020년 5월 | 구직 단념자 |
| 구직단념자 전체 | -27 | 17 | 30 | -12 | 193 | 39 | 578 |
| 전공·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7 | 11 | 19 | 1 | 31 | 5 | 64 |
|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없어서 | -5 | 22 | 22 | 3 | 64 | -1 | 146 |
|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1 | 8 | 11 | 13 | 16 | 48 | 90 |
|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33 | -30 | -30 | -41 | 35 | -36 | 69 |
|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 1 | 1 | 1 | 0 | 1 | -5 | 16 |
|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 5 | 5 | 7 | 1 | 35 | 28 | 1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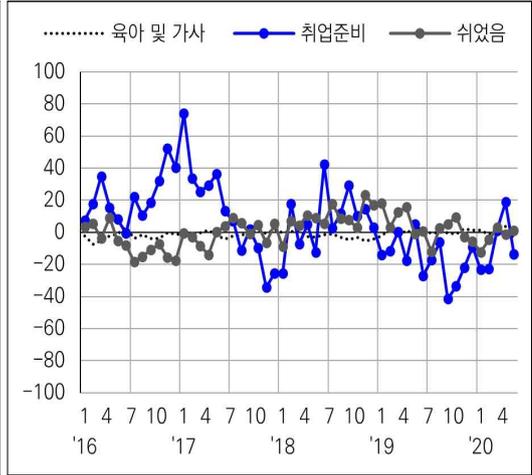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구직단념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그림 2] 활동상태별 청년층 구직단념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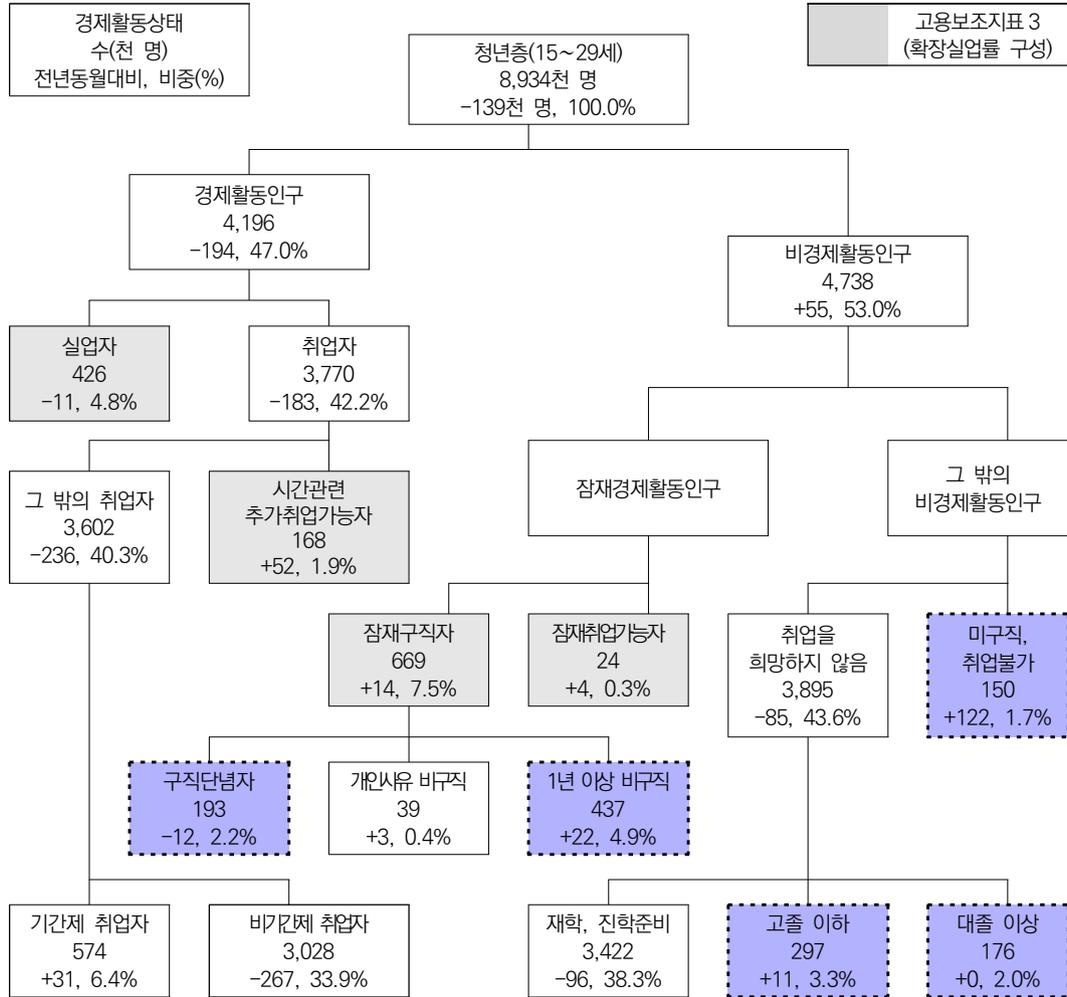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취업 준비는 활동상태별로 '취업 준비'와 '취업학원 통학'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반면, 청년층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근처에 일거리가 없거나 이미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구직을 단념한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함.
- 구직단념자는 고용보조지표 구성상 잠재구직자에 포함되고 있음(그림 3 참조). 반면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청년층(그림 3에서 굵은 점선)이 최근 늘어나고 있음.
 - 취업을 희망하고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할 수 있지만 지난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그림 3에서 '1년 이상 비구직')는 43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 증가함.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그림 3에서 '미구직, 취업불가')는 과거에는 2만 명 내외로 비중이 매우 적었으나 2019년 8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15만 명임.
 - 현재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청년층의 대부분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거나, 입시학원을 다니는 등 상급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임. 반면, 최근 고교 및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47만 3천 명임.

[그림 3]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구성도¹⁾(2020년 5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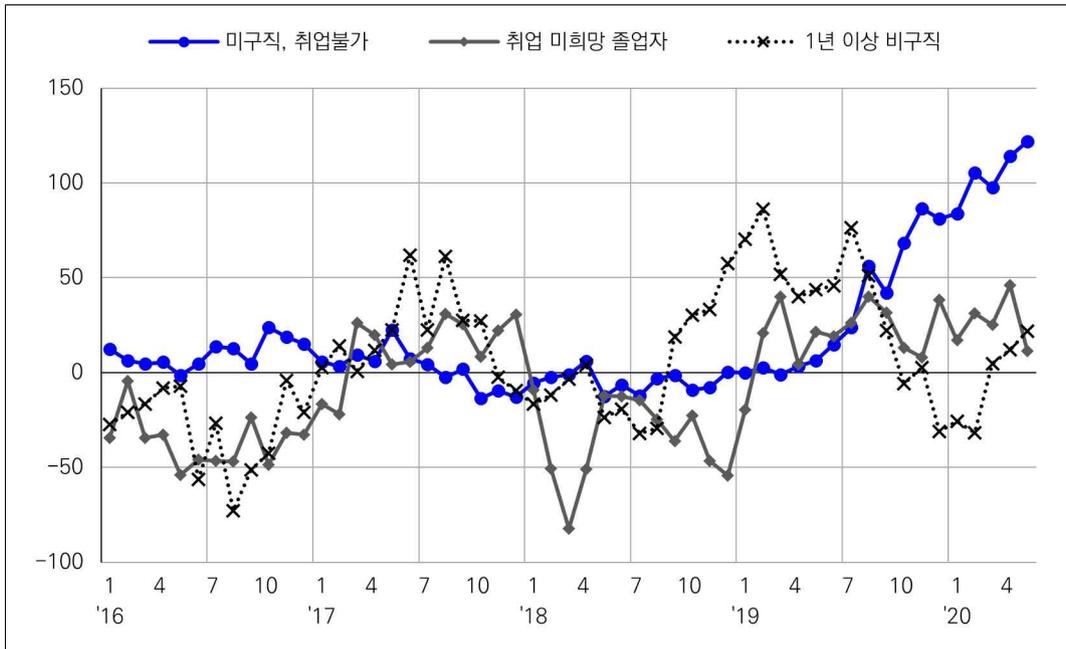
1)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정의하는 3가지 조건(취업희망 여부, 구직활동 여부, 취업가능 여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정의하고 있음. '1년 이상 비구직', '미구직, 취업불가' 등은 저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확장하였으며 명칭 또한 임의로 설정하였음.

| | |
|-----------|--|
| 실업자 | = 취업을 희망 ○ + 4주내 구직활동 ○ + 현재 일을 할 수 있음 |
| 잠재취업가능자 | = 취업을 희망 ○ + 4주내 구직활동 ○ + 현재 일을 할 수 없음 |
| 잠재구직자 | = 취업을 희망 ○ + 4주내 구직활동 × + 현재 일을 할 수 있음 |
| 구직단념자 | = 잠재구직자 + 1년내 구직활동 ○ + 노동시장적 사유로 비구직 |
| 개인사유 비구직 | = 잠재구직자 + 1년내 구직활동 ○ + 개인적 사유로 비구직 |
| 1년 이상 비구직 | = 잠재구직자 + 1년내 구직활동 × |
| 미구직, 취업불가 | = 취업을 희망 ○ + 4주내 구직활동 × + 현재 일을 할 수 없음 |
| 재학, 진학준비 | = 취업을 희망 × + (수학여부별 재학, 휴학 중 또는 활동상태별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

- ‘1년 이상 비구직’은 고용상황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함.
 - 그러나 ‘미구직, 취업불가’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졸업자’ 역시 2019년 7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이전부터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이 일부 나타남.
 - 청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재학생(+진학준비 포함)과 비기간제 취업자는 감소하고 기간제 취업자나 구직단념자를 포함해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구직단념자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발하는 고용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그림 4] 고용보조지표 구성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